

노동정책연구
2006. 제6권 제4호 pp. 31~54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한국 상황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소고

김경휘*
반정호**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다양하게 사용되는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에 적합한 사회적 기업의 유형을 탐색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공공부조형(PAT), 지역사회친화형(LFT), 시장친화형(MFT) 사회적 기업으로 유형화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공공부조형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 정부에 의해 보호된 시장을 형성하고, 종교적·박애주의적 성격을 갖는 조직으로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사회친화형은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갖고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발생한 이익은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 시장친화형은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개인 및 조직의 이윤창출에 주목적을 갖는 조직을 의미한다. 사회적 기업의 기본 원칙에 근거하여 사회적 기업으로서 적절성을 고려해 보면 지역사회친화형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적절한 사회적 기업으로 평가된다.

핵심용어 : 사회적 기업, 공공부조형, 지역사회친화형, 시장친화형

논문접수일: 2006년 8월 28일, 심사의뢰일: 9월 13일, 심사완료일: 10월 5일

* 협성대학교 외래강사(ohomimi@hanmail.net).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jhban@kli.re.kr).

I. 문제 제기

세계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세계의 정치·경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경제와 자본부문에 큰 영향을 미쳤다(김연명, 2002). 오늘날의 경제구조는 과거 경직적인 블록경제(EU, NAFTA) 체제와는 달리 매우 유연화되어 한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에게까지 그 영향이 직접적으로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세계화의 영향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현상과 소득불평등에 따른 양극화 집단의 출현으로 이어진다(Esping Andersen, 1996). 세계화의 등장은 경직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강요하였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노동자가 자유롭게—본인 또는 고용주 의사에 의해—노동시장을 진입하거나 이탈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유연화된 노동시장은 많은 노동자로 하여금 비정규직과 같은 불완전한 고용계약을 맺도록 강요하였으며, 또한 낮은 임금수준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빈곤해지는 부정적인 결과들을 초래했다.¹⁾

세계화 및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나타나기 이전에는 기존 사회정책으로 제한적으로나마 빈곤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오늘날의 변화된 경제환경에서는 기존 사회정책만으로는 새롭게 나타나는 불평등 및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유럽 국가들은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정책 패러다임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 최근 들어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s)은 이러한 노력들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사회적 기업의 태생지로 알려진 유럽은 19세기 산업자본주의에 의해 나타난 고용불안, 인구고령화 및 신빈곤(working poor)으로 인한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 가족해체 등과 같은 문제를 기존 자본주의 시장의 부작용의 산물이라 보고, 이를 사회연대(social solidarity)로 해결하고자 시도하고

1)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사례를 통해 잘 알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실업률은 낮지만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미국이 국가 주도하에 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통해 저임금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고,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자리에 진입하게 되어 실업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일자리가 있어 취업은 가능했으나 임금수준이 낮음으로 인해 빈곤율은 오히려 더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있다(최민, 2002).

시기적으로 유럽에 비해 늦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유럽 선진국이 경험했던 역사적 경로를 유사하게 경험을 함으로써 기존 사회정책의 변화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비교적 최근까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국내 연구(노동부, 2006; 노대명, 2005; 자활정보센터, 2003; 노동부, 2003; 한국노동연구원, 2003)들이 이루어졌지만,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적 합의를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²⁾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의 유형과 그 역할을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 또는 시민단체가 사회적 기업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적 합의를 이루는 것은 매우 절실해 보인다. 만약 이처럼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개념 및 유형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개념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화될 경우 정책이 갖는 본래의 목적에 애매해지거나, 제도가 집행되더라도 그 정책적 효과를 평가할 기준이 모호해진다.³⁾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현재 명확하게 개념 정의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 개념을 비교·유형화하며, 더 나아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조직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사회적 기업 모델이 무엇인지를 탐색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2) 노동부(2006)는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서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영리·비영리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편 한국노동연구원(2003)은 사회적 기업이란 '제3섹터(third sector), 자원부문(voluntary sector),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ic), 비영리부문(not for profit sector), 독립부문(independent sector), 제3체계(the third system), 시민단체 등'의 개념들이 사용되고 있다.

3) 유사한 사례를 들면, 2000년 자활사업이 실시된 후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문제는 과연 우리나라에서 '자활'이란 무엇인가 하는 개념적 논쟁이다.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이란 곧 수급 탈피를 통한 경제적 자활로 규정한 바 있지만 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된 바 없다. 그로 인해 지금까지 자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활의 개념을 잘못 설정함으로써 인해 결과적으로 많은 자활사업 참여자들이 경제적 자활을 이루지 못하고 자활사업에서 부정적인 형태로 자활사업에서 이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II. 연구의 목적과 구성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정리하고 이러한 정의에 기초하여 사회적 기업의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고에서는 국내외 사회적 기업 개념 및 유형(모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사회적 기업의 유형을 제시하고 향후 사회적 기업의 제도화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기업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위해 사회적 경제의 개념 및 영역에 대해 살펴보았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통해 사회적 경제에서 중요한 조직으로 기능하는 사회적 기업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했다. 둘째, 현재까지 이루어진 논의에서 사용된 사회적 기업의 정의 방식을 살펴보고, 각각의 개념을 보다 포괄적인 방식으로 정리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선행연구에서 논의된 사회적 기업을 유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범주 기준(개념모형, 조직모형, 범주모형)을 검토하고 본 연구에서 제안된 정의 방식에 따른 사회적 기업 유형(공공부조형, 지역사회친화형, 시장친화형)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각각의 유형을 사회적 기업이 지녀야 할 기본조건에 따라 비교·분석하였다.

III. 기존 연구 검토

1. 사회적 경제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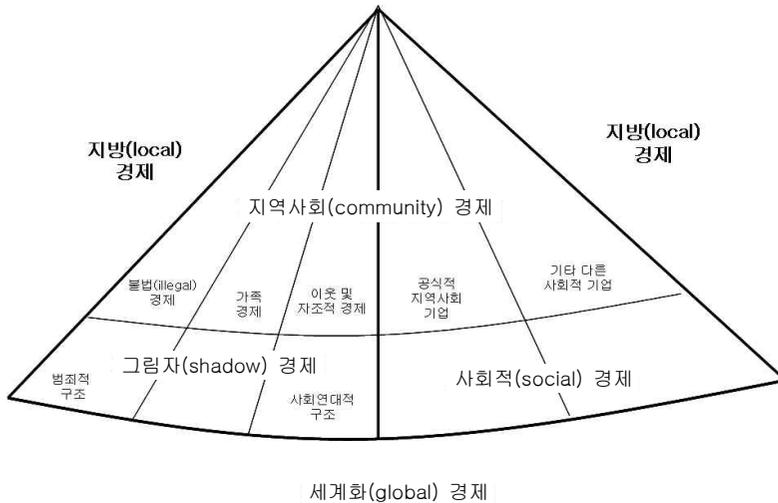
유럽에서 사용되는 사회적 기업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적 기업은 1980~90년대 이후에 등장한 새로운 개념인 반면, 사회적 경제는 산업혁명 이후, 200여 년 동안 사용되었던 개념으로서 사회적 기업의 이론적·조직적 토

양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엄형식, 2005). 사회적 경제란 수익 또는 형평성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경제나 공공경제와 달리, 사회연대성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또 하나의 경제 영역을 지칭하는 Non-Profit Sector와도 다른 의미를 갖는다. 즉 사회적 경제는 비영리성을 띠는 경우도 있지만 수익성 또한 배제하지 않는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노대명, 2006). 일반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설명할 때 두 가지 형태를 예로 드는데, 미국식 사회적 경제와 유럽식 사회적 경제가 바로 그것이다.

미국식 사회적 경제란 유럽국가에서 말하는 ‘제3체계(third system)’가 아닌 지역사회의 자원봉사 조직 및 자선 조직 등으로 구성된 비영리 조직의 집합체를 의미한다(Colin Stutt Consulting, 2001; Mort, 2003). 이에 비해 유럽식 접근은 사회적 기업들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정부로부터 최소한의 도움만을 받고, 세계화된 경제에 맞서기 위해 독자적인 경제구역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다(CDA, 2004; Campbell, 1999; Browne, 1997). 사회적 기업이 빈곤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평가된다면, 미국식 접근보다는 유럽식 접근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유럽국가에서의 사회적 경제는 국민들의 경제적 자조 및 지역개발을 위한 제3체계의 하나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즉 관료적인 정부로부터 독립적이고 경제적인 원리만을 내세우는 시장으로부터 일정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창출된 이익의 개인 분배를 제한하고, 지역사회에 보편적 욕구충족 및 상호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공통된 이익을 갖도록 기여한다고 말한다. 또한 부분적으로는 일반 국민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한다는 이유에서 유럽국가에서는 이런 형태를 비영리부문으로 보기보다는 ‘사회적 경제’의 한 영역으로 보고 있다(Borzaga et al., 1999; CBS-Network, 2004; Browne, 2004)

그렇다면 사회적 경제란 어느 영역에 위치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일반적으로는 사회적 경제란 단순히 보편적인 실천과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나 국가 차원의 협소한 영역이 아니라 자원봉사, 비영리, 그리고 협동조합 등의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이들 조직들은 국가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식적인 경제 영역이다. Browne(2004)은 사회적 경제란 매우 중립적이면서 공식적인 성격을 갖는 경제라고 밝히고 있다. 그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적체계’, 관료적인 ‘공적체계’, 그리고 세계화 경제인

[그림 1] 사회적 경제의 영역4)



‘제3체계’로 구분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회적 경제’는 지방경제(local economy)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 경제(communitiy economy)로서 ‘공식적인 제3의 체계’에 위치하고 있다(Galliano, 1999). 종합해 보면, 사회적 경제는 과거처럼 정부 주체의 사회정책을 통해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조직하여 거대 시장에 대응하는 보다 자치적이고 독자적인 시장을 형성하여 빈곤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위의 [그림 1]과 같다.

2. 국외의 사회적 기업 개념과 원칙에 관한 논의

사회적 기업 개념은 논자에 따라 그 의미와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된다. 사회적 기업 개념을 정의함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단순히 영리추구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사회적 기업의 태생 과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1970년대 유럽을 강타한 경기불황과 그에 따른 고실업이 발생하자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시작되었다.

4) CBS Network Discussion Paper-Defining the Social Economic, Social Enterprise and Social Capital(<http://www.cbs-network.org.uk/discussSE.html>).

이에 사회적 기업은 기존의 복지제도 및 노동, 고용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즉 사회적 기업을 단순히 이윤추구를 하지 않는 조직이라고 정의하기보다는 세계화된 자본 및 경제에 각 노동자들이 집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조직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Social Enterprise London(1996)은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갖는 사업의 형태라고 정의하고,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경제 성장의 한 부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Auteri(2003)는 사회적 기업은 순수한 사업에서 시도되어서 순수한 박애주의적 기업으로 변환 조직이라고 정의하면서, 박애주의와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을 혼합하여 선택된 특별한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Campell(1998)은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갖는 사업으로서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고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이윤을 사회적으로 보편화하고자 하는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와는 달리, Thomson(2002)은 사회적 기업이란 용어는 아직까지 충분한 이해 없이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많은 사회적 기업들은 기업이란 단어에 대해 스스로 불편하게 느끼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Thomson은 기업과 자원봉사 영역 사이에서 사회적 기업의 범위는 효율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있고, 자원봉사 영역을 사회적 기업으로 정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회적 기업 스스로 자원봉사 영역까지 개념 정의를 확대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기업 개념은 논자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개념들의 정의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이 갖추어야 할 공통의 원칙을 찾을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기업에서 제공되는 재화나 서비스는 이익의 극대화 원리에 기초하지 않는다. 둘째, 기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절대 이익을 분배하지 않으며, 분배하더라도 창출된 이익의 분배를 항상 제한하는데, 그 이유는 사회적 기업은 투자를 통해 창출된 최대한의 이익을 분배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보편적 욕구 충족 및 상호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공통의 이익을 기여, 일반 국민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의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하기 때문이다. 셋째, 사회적 경제 조직들의 법적 지위는 비영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 대한

<표 1> 유럽연합(EU)의 사회적 기업의 공통원칙

- 사회적 기업은 경제 및 무역활동에 있어서 특정한 사회적 목적을 연계하는 것을 추구함.
- 사회적 기업은 조직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모든 초과된 이익은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해 재투자하는데, 이는 기업의 사회적 목적을 위한 다른 방법으로도 사용됨.
- 사회적 기업은 합법적인 구조를 갖고 기업의 모든 자산과 축적된 부는 어떤 개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목적을 부합하는 개인 및 지역에 자원으로 사용되기 위해 은행에 신탁됨.
- 사회적 기업의 조직구조는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는 구조로서 모든 구성원들의 권리에 근거하여 협동조합 형태를 가짐.
- 사회적 기업의 핵심 특징은 사회적 기업과 광범위한 사회 및 지역경제의 다른 조직간 상호협동적인 활동을 고취시키는 것임.

자료: Birkholzer, *European Network for Economic Self-Help and Local Development*. 2000, pp.52~53.

물질적인 이익에 배분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다른 조직과의 경계는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적 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경계를 경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또한 투자에 대한 이익을 개인에게 분배하기보다는 오히려 집합적인 부로 보편화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표 1>은 유럽연합(EU)이 사회적 기업이 갖추어야 할 공통의 원칙을 정리한 것이다.

3. 국내에서 논의된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그 한계

현재까지 나타난 사회적 기업의 개념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유럽식 모델의 사회적 기업을 도입하려는 것이 대세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자가 이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 기업이 유럽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과거 유럽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대안으로 선택했던 사회적 기업의 방식이 유럽과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적합할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적 기업의 도입과 관련된 학자들의

학문적 배경이 대부분 유럽국가에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⁵⁾ 여기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도입과 관련된 논의 형태와 그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사회적 기업에 대해 최근 연구에서는 사회적 기업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1) 사회적 목적의 실현, (2) 사회적 소유와 민주적 운영, (3) 물적 토대의 안정성, (4) 가치의 내재화 추구를 공통적 요소로 제시하고 있다.⁶⁾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기업의 도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가 제시한 이와 같은 네 가지 원리는 유럽식 사회적 기업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상당 부분 유사하지만, 그 실천 내용에 있어서는 기존 제도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이들의 주장은 사회적 기업의 출발점이 자활후견기관에서 출발해야 하며, 사업 내용 역시 현행 자활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비춰진다. 현재 자활사업은 국가 주도로 형성된 보호된 시장과 보호된 사업(집수리, 간병, 청소, 음식물 및 폐자원 재활용)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자활사업을 사회적 기업 형태로 발전시키는 것은 또 다른 보호된 개념의 시장과 기업을 생성하는 것이 되어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관련자들이 구상하는 유럽식 사회적 기업과는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⁷⁾, 자칫 또 다른 형태의 공공부조 제도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현행 자활사업이 국가 주도에 의해 보호된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 국가에 의해 행정·재정이 전적으로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조건 -사회적 가치·목적, 지역사회 이익배분, 의사결정권, 독립성·자치성 등- 들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5) 이러한 경향은 자칫 정책대안의 선택 또는 학문적 선택의 폭을 좁힐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유럽식 관점에서 정의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식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조직들이 많기 때문이다.

6) 첫째, 사회적 목적의 실현(양질의 사회적 서비스 제공, 저소득, 빈곤층의 자활지원, 사회통합, 양극화 해소에 기여), 둘째, 사회적 소유와 민주적 운영(노동자/시민사회단체/이용자/정부/기업 등의 권한과 책임분담, 윤리적 경영과 투명성 보장), 셋째, 물적 토대의 안정성(적절한 사업수익, 정부/일반기업/시민단체, 일반시민의 지원, 전문성과 효율성 실현), 넷째, 가치의 내재화 추구(구성원들의 가치공유, 적절한 조직구조 구축)

7) 물론 유럽식 사회적 기업의 개념 및 유형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을 수 있으나 공공부조 틀 안에서 국가 주도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만든다는 것은 사회적 기업이 갖는 긍정적인 기능을 축소할 위험이 크다고 판단된다.

때문이다.

둘째, 앞서 언급된 내용보다 더 실제적으로 진행된 내용으로서, 최근 정부 부처가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며, 노동부는 사회적 기업 법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가 정의하는 사회적 기업의 개념 및 특징을 보면,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영리·비영리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노동부의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기업은 포괄적 대상을 두고 매우 다양한 서비스를 생산하여 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 정의에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 있다. 주요한 이유로 첫째, 노동부가 실시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은 그리 새로울 만한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노동부가 실시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의 기능과 역할은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공동체사업-과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외형 변화를 둔 제도가 정책적으로나 비용효과성 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사회적 기업 형태를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 형태 모두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사회적 기업의 성격을 모호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처럼 서로 다른 대상을 포괄하는 경우 대상 선정의 기준과 관리 측면에서 많은 정책적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은 일련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⁸⁾

따라서 노동부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은 그 목적과 방향이 명확해야 할 것이다. 노동부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취업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자활사업을 포기하고 사회적 기업이란 새로운 형태의 제도를 실시하고자 한다면, 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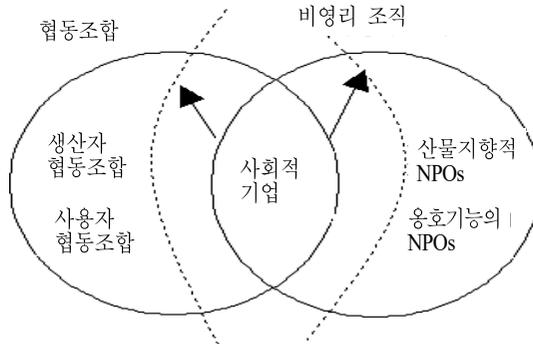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실시와 함께 자활사업이 실시되었다. 자활사업은 대상의 노동 능력에 따라 취업 대상자와 비취업 대상자로 구분하여 각각 운영되었다. 그러나 한 제도 안에 대상자의 노동 특성에 따라 효과적으로 구분하겠다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실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자활사업 참여율의 저조에 따라 차상위 계층, 일반수급자 및 특례자의 참여율이 높아졌으며, 참여자의 탈락률도 높아지는 문제점을 드러냈다. 노동부의 경우 취업 대상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직업훈련을 실시했으나, 참여율이 낮거나 효율성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와 같은 최근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동일한 제도에서 같은 대상을 두고 특정 기준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제도를 운영할 때 대상자 선정기준 및 사례 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동부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기업과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자활사업과의 차별성과 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처간의 중복 업무와 정책 대상의 중복을 피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9)

4. 사회적 기업의 범주

사회적 기업의 범주에 대한 논의는 보는 관점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개된 사회적 기업의 개념적 논의에서는 그 출발점을 기존의 자활공동체로 보는 관점과 사회적 기업을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 모두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문헌고찰 결과, 기존 연구들에서는 사회적 기업의 형태를 (1) 사회적 기업을 개념에 따라 구분한 개념모형(Concept Model), (2) 사회적 기업을 조직 형태에 따른 조직모형(Organize Model), (3) 사회적 기업의 범주 형태에 따른 범주모형(Categorical Model)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그림 2] 협동조합과 비영리부문의 교차점에 있는 사회적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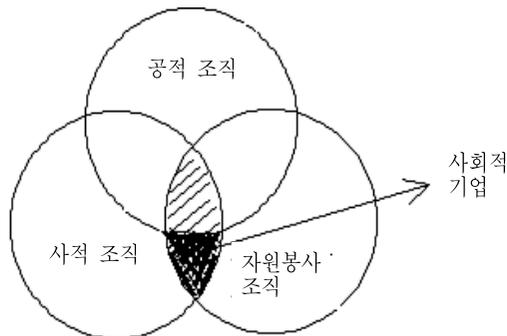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 2003, p.22.

9) 최근 사회적 기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는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일자리가 사회적 서비스 영역에서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에서 기인된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자칫 일자리의 영역을 제한시킬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사실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일자리 용어 자체가 공익적 성격을 갖는 일자리를 의미하며, 그렇다면 사회적 서비스가 제격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이 발전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회적 지원을 통해 사회서비스 영역뿐만 아니라 더 많은 영역—IT 산업, 농업, 축산업 등—으로 확장되어 사회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는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사회적 기업을 개념 정의 차원에서 분류한 모형을 보면 [그림 2]와 같다. 한국노동연구원(2003)에서 정의한 사회적 기업은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존재했던 협동조합과 현재 비영리라고 정의되는 조직들 중간에 위치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적 정의가 갖는 한계는 공동체 형태의 협동조합과 비영리 조직간 명확한 구분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두 영역의 교집합적인 부분에 어떤 조직들이 포함되는지에 대해 알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둘째, 사회적 기업을 기능적 영역으로 구분한 모형을 보면 [그림 3]과 같다. Colin Stutt Consulting(2001)은 사회적 기업을 공적·사적, 그리고 자원봉사 영역 사이에 교차되는 활동 영역을 갖는다고 정의하고, 각 영역은 매우 유연하지만,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하였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은 공적 조직을 제외한 사적 조직과 자원봉사 간의 교집합에 사회적 기업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는 사회적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정부로부터의 비상업적인 지원을 받고, 지역사회로부터 부족한 자원의 지원을 받으며, 자원봉사 지원을 받는다는 가정 아래 고안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모형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는 협동조합, 공동사업, 자선적 교환, 지역화폐제(Local Exchange Trading System, 이하 LETs), Credit Union, 공동체 기반의 개발, 윤리은행 및 공동체정 제도 등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Colin Stutt Consulting(2001)이 언급한 형태의 조직들은 유럽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실시되는 사회적 기업들이다. 그러나 이 모델이 갖는 한계는 한국노동연구원(2003)에서 제시한 모형처럼 각 영

[그림 3] 사적조직과 자원봉사 조직의 중간영역으로서의 사회적 기업



자료: Colin Stutt Consulting, *Social Economic Review-Resource Paper1 : Defining Sector*, 2001, p.235.

역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사회적 기업을 단지 사적 조직과 자원봉사 조직의 중간 영역 정도로만 정의한다는 점이다.

셋째, 사회적 기업을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중심으로 범주적 분류를 한 모델을 보면 [그림 4]와 같다. ICOM(Industrial Common Ownership Movement)은 조직모형보다는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사회적 기업의 범주를 협동조합(Co-operatives), 상호부조(Mutuals), 협의체(Associations) 등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고 있다(ICA, 2004; 자활정보센터, 2003; 한상진, 1999). 따라서 협동조합은 영리를 추구하는 자조집단으로서 주요 조직 형태로는 근로자 협동조합, 소비자 협동조합, 상호보험 사회, 농협 협동조합, 지역사회 협동조합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상호부조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자조집단으로서 Credit Union, 무역 및 전문직 협의체, 그리고 협의체와의 중간 단계의 입출이 제한적인 자조집단 형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체는 자선조직의 형태를 갖는다고 분류하고 있는데 유사한 조직 형태로는 주거협의체, 자선협의체, 지역사회 기업, 입출이 자유로운 자조집단 형태가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Auteri, 2003).

[그림 4] 사회적 기업의 범주적 구분

협동조합 (Co-operatives)	상호부조 (Mutuals)	협의체 (Associations)
노동자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Building Societies	주택협동조합 자선조직
상호보험 조합	무담보소액대출은행 (Credit Unions)	엄격한 자조 집단 이익집단
농업협동조합	무역/전문직 협의체	개방적 자조 집단
지역사회 협동조합		지역사회 기업
영리(Profit) 자조조합	비영리(not Profit) 자조조합	박애주의(Philanthropic)

자료: Colin Stutt Consulting. *Social Economic Review-Resource Paper1: Defining Sector.* 2001, p.234.

이 범주적 모델에서 사회적 기업 분류는 이익을 추구하는 협동조합과 자선을 행하는 자선조직을 사회적 기업을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사회적 기업은 조직 내의 영리를 추구하기보다는 발생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범주적 모델에서 분류하는 조직 중 일부 조직 및 기관들에 대해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적절성을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종합해 보면, 각각의 모형들은 개별적인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의 한계를 포함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모형들이 사회적 기업의 대략적인 영역만을 표기할 뿐, 고유한 특성이나 포괄 대상층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IV. 본 연구가 제안하는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유형 분류

1.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유형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회적 기업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고, 각각의 형태에 따라 목적 및 포괄하는 대상층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명확히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장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기업형태를 사회적 기업의 성격·형태·포괄 대상에 따라 공공부조형(Public Assistance Type, 이하 PAT), 지역사회친화형(Local Friendly Type, 이하 LFT), 시장친화형(Market Friendly Type, 이하 MFT)으로 재정리하였다.

먼저 사회적 기업을 단순히 빈곤층에 대한 시혜적 성격의 ‘공공부조형 사회적 기업’이 있다(Auteri, 2003). PAT는 박애주의와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장을 혼합하며 만든 시장, 즉 사회적 기업 참여자를 위한 ‘보호된 시장’을 만들어 이들에게 시혜적으로 복지급여를 제공하는 또 다른 유사한 공공부조 제도로 판단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활사업의 자활공동체(일부 광역화된 자활사업, 간병, 아가마지 등은 제외)일 것이다. 현행 자활사업은 제도적인 틀은 공적 조직인 반면, 내용적으로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요소 —

의사결정구조, 이익분배 등— 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PAT와 같은 접근 방식이 갖는 한계점은 사회적 기업의 참여 대상을 단순히 절대빈곤층으로 제한시킬 뿐만 아니라 복지 의존성, 조세 저항 등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Auteri(2003)가 언급한 것처럼 사회적 기업을 단순한 자선조직 및 공공부조의 한 제도로서 치부한다면 사회적 기업이 갖는 보다 많은 긍정적 기능을 간과할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둘째, 유럽적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갖고, 개인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 ‘지역사회친화형 사회적 기업’이 있다(Brozaga, 2000; Campbell, 1998, Laville et al., 1999). LPT는 유럽식 사회적 기업으로서 사회적 기업이 속한 지역사회를 위한 목적을 갖고, 구성원들의 빈곤탈피 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Social firms Scotland, 2004). 또한 부족한 재원을 지역사회에 대한 지지적 활동을 통해 얻고, 발생한 보편적인 이익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기능을 역할을 수행한다(Campbell, 1998). 사회적 기업이 비영리 조직처럼 정부의 직접적 지원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그 형태에 있어서는 합법적인 공식 조직이며, 정부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이상적인 조직이다(Social Entrepreneur Network, 2004). LPT는 빈곤자 및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지역의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따라서 그동안 빈곤자 및 저소득층이 일반 노동시장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해 일자리를 얻지 못해 지속적으로 빈곤해지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지역사회로부터 배제되는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는 형태라 할 수 있다(Boschee & McClurg, 2003).

마지막으로, 미국식 사회적 기업으로 대부분 비영리 조직으로 정의되는 ‘시장친화형 사회적 기업’이 있다(Social Enterprise Magazine Online, 2004 · Auteri, 2003). MFT는 새로우면서도 창조적인 무엇인가를 찾는 과정이며, 개인의 부를 증가하기 위해서나 또는 사회적 가치를 찾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혁신적인 형태라고 정의하고 있다(Laville et al., 1999; Kao, 1998). MFT는 미국식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공익활동 및 사회를 돕고, 그리고 자선을 위한 재정적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이익을

〈표 2〉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유형

	공공부조형 사회적 기업(PAT)	지역사회친화형 사회적 기업(LFT)	시장친화형 사회적 기업(MFT)
목적	빈곤 탈피	세계화, 자본주의로부터의 독립적인 삶 유지	노동시장 진입
성격	시혜적·의존적	자활·자립적	독립적
주체	국가	민간+국가(제한적)	민간
주요 영역	공적 영역	지역사회 기반 사적영역	포괄적 사적 영역
주요 대상	빈곤자	욕구가 있는 빈곤층 및 저소득층	빈곤선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
재원	공적 이전	제한된 공적 이전+지역사회 자원	제한된 공적 이전+노동시장 자원
주요 전달체계	공적 전달체계	지역사회 네트워크	노동시장 내 모든 조직
이익재분배	매우 제한된 재분배	제한된 재분배	무한한 재분배
의사결정구조	경직됨.	자율적	자율적
소유권	일정기간 후 소유권 전환(국가→구성원)	구성원의 공동 소유	창업주 개인 소유
지역사회관계	친밀하지 못함.	매우 친밀함	친밀하지 못함.
시장과의관계	보호된 시장으로 일반 노동시장과 거리감이 큼.	자본주의와 세계화에 대항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함.	시장 내에서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시장과 매우 친밀함.
투자중심성	낮음	높음(단, 지역 사회 내)	매우 높음
충족조건	보호된 시장으로서 정부 및 지방정부로부터 확실한 제도적 지원이 수반되어야만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필요한 자원을 지역사회에서 조달하고, 생산된 이윤을 다시 지역사회로 환원시켜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하며, 이익재분배, 의사결정구조가 매우 유연하면서도 투명해야 함.	시장 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템, 판로개척, 자금조달 등의 조건에 있어서 확실한 지원이 필요함.

위한 활동을 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 및 활동, 재원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다. 이러한 형태의 사회적 기업들은 시민단체, 자원봉사 영역에서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 방식은 빈곤문제를 직접적으로 개입하거나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방법이 되기 어렵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미국식의 사회적 기업에 속하는 조직으로는 시민단체, 봉사단체, 자선단체, 학교, 병원들이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조직들이 오늘날에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는가? 물론 시민단체 및 자선단체가 빈곤문제를 위해 오랜 기간 동안 기여했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조직들이 사회적 기업으로서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제기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앞의 <표 2>와 같다.

2. 한국 상황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모색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공공부조형 사회적 기업, 지역사회친화형 사회적 기업, 시장친화형 사회적 기업으로 구분·정의했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사회적 기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적 정의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은 단순히 세계화의 헤게모니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의 역사적·문화적·사회적 요인들의 의해 고유하게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이다(Thompson, 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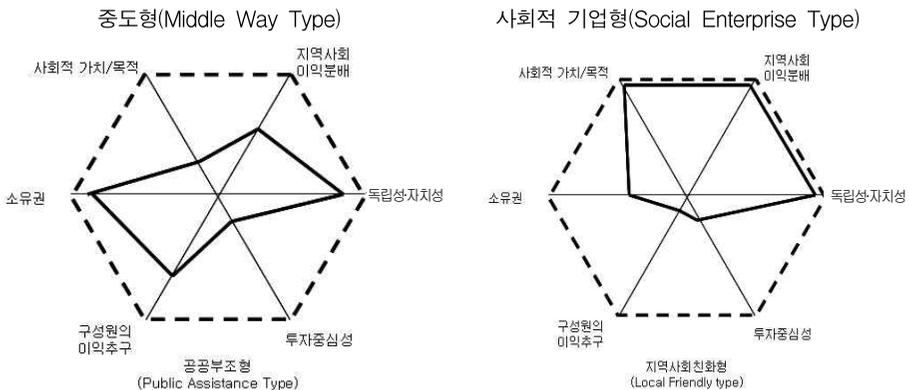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 사회적 기업모델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Colin Stutt Consulting(2001)은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목적, 지역사회 이익분배, 소유권, 독립성·자치성, 구성원의 이익추구, 투자중심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분석된 [그림 5]를 보면, 각 꼭지점의 요소들은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이다. 분석 결과, 공공부조형 및 시장친화형은 사회적 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소들보다는 정부 의존적이거나 보호된 시장 내에서만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장친화형의 경우는 시장이나 영리적인 요소들이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시장친화형은 이익선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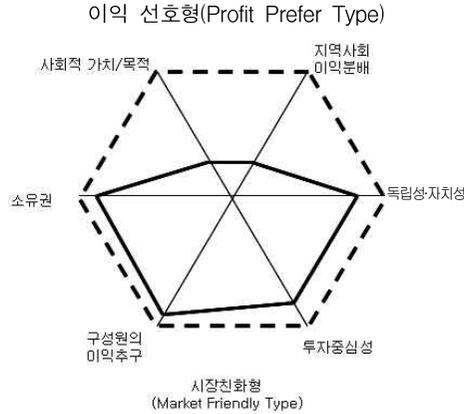
(Profit Prefer Type)으로서 재정의 될 수 있는데, 소유권, 독립성·자치성, 구성원들의 이익추구, 투자중심성 요소가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시장친화형의 성격이 조직 구성원들의 이익추구를 위해 결집된 조직으로서 사회적 가치 및 목적을 실현하기보다는 개인의 이익추구를 더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또한 조직의 이익 재창출을 위해 시장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공부조형은 중도형(Middle Way Type)으로 재정의 될 수 있는데, 지역사회친화형 및 시장친화형과의 성격을 비교해 볼 때, 지역사회 경제와 시장의 완충적 역할을 하는 중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조형은 소유권, 지역사회 재분배, 구성원의 이익추구, 독립성·자치성 요소가 중도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공공부조형의 구성요소들이 정부의 시혜적·박애주의적 성격을 갖는 조직특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반대로 지역사회친화형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사회적 기업형(Social Enterprise Type)으로서, 사회적 기업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인 사회적 기업의 목적·가치, 지역사회 이익재분배, 독립성·자치성 요소가 매우 강력함을 알 수 있다(Social Entrepreneurs Network, 2002). 이는 지역사회친화형에 포함되는 조직들이 지역사회에 자원들을 지원받고, 이를 가공하여 재화와 서비스로 생산하여 지역사회에 재환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요소들이 다른 형태의 조직들에 비해서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사회적 기업의 유형별 적절성 비교분석





V. 결론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들어 논의되기 시작한 사회적 기업이 무엇인가란 문제 의식에서 출발했으며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본고는 우리 사회에 어떤 형태의 사회적 기업이 적합할 것인지에 대해 탐색해 보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오늘날 사회적 기업이란 용어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회적 기업은 단순히 세계화의 헤게모니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와 더불어 각 나라의 역사·문화·사회·종교 등의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고유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처럼 어떠한 실체에 대해 다양한 개념이 사용되는 것은 정책입안자, 실천가, 참여자,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당사자 모두에게 많은 혼란을 야기한다. 새로운 개념이 한 사회에 처음 사용될 때—이전에 존재했다라도 새로운 개념 및 가치가 부여될 때에도—그 개념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는 것은 이후의 여러 정책 과정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 존재했던 다양한 사회적 개념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고, 각각의 개념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유형화하였다. 공공부조형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기업이 정부에 의해 보호된 시장을 형성하고,

종교적·박애주의적 성격을 갖는 조직으로 정의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사회친화형 관점은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목적을 갖고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지역사회에 제공하고, 발생한 이익은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이 조직은 공공조직으로부터 정부 및 자선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영된다. 시장친화형 관점은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개인 및 조직의 이윤창출에 주목적을 갖는다 하겠다. 즉 정부의 제한적인 지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유형 중 어느 것이 옳다고 쉽게 판단하기보다는 각각의 유형 중 어떤 유형이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사회적 기업으로서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형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기업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 6가지 —사회적 가치·목적, 지역사회 이익분배, 소유권, 독립성·자치권, 구성원의 이익추구, 투자중심성—를 중심으로 측정해 보았다. 분석 결과, 지역사회친화형은 사회적 가치·목적, 지역사회 이익분배, 독립성·자치성에서 높게 나타남으로 인해 사회적 기업형으로, 시장친화형은 소유권, 구성원의 이익추구, 투자중심성, 독립성·자치성에서 높게 나타나 이익선호형으로 재정의되었다. 공공부조형은 소유권, 독립성·자치성에서 높게 나타났고, 지역사회 이익분배 및 구성원의 이익추구 항목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적 기업형 또는 이익선호형의 중간에 위치한다고 판단되어 중도형으로 재정의되었다.¹⁰⁾ 이렇게 볼 때 지역사회친화형이 유럽식 사회적 기업형에 매우 유사한 형태라고 생각된다. 빈곤층 및 저소득층의 빈곤문제 해결을 위해 수단으로서 지역사회친화형 사회적 기업에 더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공공부조형 사회적 기업 및 시장친화형 사회적 기업은 주대상층인 일부 빈곤층 및 일반인만을 포괄하며,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이 미미하며, 주요 의사결정에서 구성원들이 배제된다

10) 다시 한번 강조하건데, 본 연구에서 유럽식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을 분석한 것은 최근에 나타난 사회적 기업의 논의가 대부분 유럽식 모델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의 논의가 유럽식 관점에서 주로 논의되는 것은 한편으로는 적절하지 못한 접근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것은 유럽식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식 사회적 기업 방식이 우리 사회에 이미 확산되었고, 사회 내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지역사회친화형 사회적 기업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여 빈곤층 및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지역사회에 판매한다. 이를 통해 발생한 이윤은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빈곤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국가 및 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도록 하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Campbell, 1998).

본 연구가 제도 도입 초기에 논의되는 매우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를 소고적으로 이루어졌지만 기존 자활사업의 후속 추진사업으로 사회적 기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원론적인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리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개념들에 대해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과 함께 우리 사회에 사회적 기업 모델을 제시함에 있어서 많은 조직 사례를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한 한계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고, 이러한 한계점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연명. 『한국복지국가 성격논쟁 I』. 인간과 복지, 2002.
- 노대명. 「사회서비스부문 고용창출 방안에 대한 연구: 사회적 일자리 사업 개편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25권 2호, (2006) pp.35~81.
- _____. 『사회적 일자리 활성화 및 사회적 기업 발전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 노동부. 「사회적기업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2006).
- _____.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 (2003).
- 자활정보센터. 『한국사회에서의 사회적 경제의 등장과 자활공동체의 전망』. (2003).
- 엄형식. 「유럽적 의미의 사회적 기업 개념과 시사점」. 『도시와 빈곤』 통권 76호, (2005) pp.78~116.
- 한국노동연구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2003).
- 한상진. 「시장과 국가를 넘어서—사회적 경제의 대안과 그 사례들」. 『경제와 사회』 50권, (1999) pp.28~49.
- 최 민. “사회적 기업의 형성 및 운영조건에 관한 연구: 장애인 고용을 중심으

로.”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Birkholzer Karl. *European Network for Economic Self-Help and Local Development*. European Network. (2000).

Carlo Borzaga, & Alberto Bacchiega. “The Economics of The Third Sector: Towards a More Comprehensive Approach”. (2004) pp.1 ~ 34.

CBS Network. *Defining the Social Economy*. Social Enterprise and Social Capital. (2004)

CDA. *The Social Economy an Introduction*. BRAVE Enterprise Agency. (2004).

Colin Stutt Consulting. “Social Economy Review.” Resource Paper 3, Key Strategy Issues. (2001).

Gosta Esping Andersen. *Welfare States in Transition*. SAGE (1996).

Gillian Sullivan Mort & Jay Weerawardena, Kashonia Carnegie. “Social Entrepreneurship: Towards Conceptualis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Marketing* 8 (1). (2003) pp.76 ~ 88.

ICA. *Co-operative Information-Statement on The Co-operative Identity*. ICA. (2004).

Jerr Boschee & Jim McClurg. *Toward a Better Understanding of Social Entrepreneurship: Some Important Distinctions*. SEL (2004).

Laville J. L., C. Borzaga, J. Defourny, A. Evers, J. Lewis, M. Nyssens & V. Pestoff. *Third System: A European Definition*. European Commission (1999).

John L. Thompson. “The World of The Social Entrepreneu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ublic Sector Management* 15 (5). (2002) pp.412 ~ 431.

Kao, Raymond W. Y. “Defining Entrepreneurship Past, Present and?”. *Creativity and Innovation Management* 2 (1). (1993) pp.69 ~ 70.

Mike Campbell. *The Third System Employment and Local Development-Volume1 Synthesis Report*. Policy Research Institute (1999).

- Monica Auteri. "The Entrepreneurial Establishment of a Nonprofit Organization". *Public Organization Review* 3 (2). (2003) pp.171 ~ 189.
- Paul Leduc Browne. *The Two Faces of the Social Economy*. Policy Alternatives (2004).
- Renato Galliano. *Social Economy Entrepreneurship and Local Development*. North Milan Development Agency (2004).
- Sandy Campbell. "Social Entrepreneurship: How to Develop New Social-purpose Business Ventures." *Health care Strategic Management* 16 (5). (1998) pp.17 ~ 18.
- Social Enterprise London. *Social Enterprise London Business Plan 2004 ~ 2006*. SEL (2004).
- Social Enterprise Magazine Online. "FAQs: SE Initiatives in the U.S." Resource & Services. (2004).
- Social Entrepreneur Network. *Social Enterprise in Australia*. (2004).
- Social Firms Scotland. *Social Firms and The Social Economy*. (2004).
인터넷 사이트
<http://www.cbs-network.org.uk/discussSE.html>(2004).

An Exploratory Study on the Concepts and Types of Social Enterprise in Korea

Kyung-Hui Kim · Jung-Ho Ban

The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organize various concepts and types of social enterprise, and search the most suitable type of social enterprise in Korea. This comparative analysis divided social enterprise into three types; public assistance type(PAT), local friendly type(LFT), and market friendly type(MFT). PAT social enterprise is defined as religious, philanthropic organization forming protected market by government. LFT social enterprise is to produce and provide required goods and services in a community, and reinvest the gained profit to the community. MFT social enterprise is the organization which does not only pursue social value, but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profit creation as well. Considering the fittingness based on the basic rules of social enterprise, we conclude that local friendly type(LFT) is the most suitable type of social enterprise in Korea.

Keywords : social enterprise, public assistance type, local friendly type,
market friendly type